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강준식 김경자 김광호 김기수 김기안 김기택 김영중 김모순 김미희 김외자 김진희
김현욱 박부웅 박해진 방복순 방찬영 배경철 백성원 석애자 유현호 유호근 윤 속 윤승한
윤조준 이명희 이옥남 이운욱 이찬호 이창규 이태일 이한철 이항교 임만순 정기성 정영심
정정애 채희춘 천세력 최기훈 최성환 최정규 최정희 추재호 황상근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경자 김기안 김도성 김명중 김외자 김현욱 박영숙 박희영 방복순 배경철 서재희 손명화
안지영 유은자 윤 속 윤승한 이경순 이명희 이찬호 이창규 이태일 정기성 조옥자 최성환 최정희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이필레 김경엽 김경자 김근봉 김병을 김순석 김종선 김충익 김춘화 김현구 민욱희 박부웅
방복순 방찬영 배경철 염영분 이미자 정계숙 정기성 채명영 채희춘 천세력 최선미 최승영 홍유정
황영욱 두 명 박성애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경엽 김영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준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소숙 안지영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자 이상이
이슬아 이소은 이소애 이옥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정숙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김민혁 두 명 양일석 이노를 전지선 정승현

☞ 월정현금

맹관순

주간 성경연구

3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레위기 12장 1절 ~ 8절			
월요일	레위기 13장 1절 ~ 17절	목요일	레위기 14장 1절 ~ 20절	
화요일	레위기 13장 18절 ~ 46절	금요일	레위기 14장 21절 ~ 32절	
수요일	레위기 13장 47절 ~ 59절	토요일	레위기 14장 33절 ~ 5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앤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화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슬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맥 시 코 : 김흥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8. 25. 주일 예배 설교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는 사람	
마가복음 10장 32-45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은 Give and Take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고 억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추종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바란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며 욕심입니다. 이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고관작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수가 열둘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자리, 곧 예수님의 좌우는 단 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혀 달라고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열 명의 제자들도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자들의 무지와 욕심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도 답답함을 느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쉽게 납득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고백은 실제로는 권력에 눈이 먼 헛된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며 고난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시하고 영광만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저 영광만 바라보았던 제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 열두 제자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의 폭정을 온통으로 겪고 있었고, 로마의 고관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지 잘 알고 있었 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꿈꾸는 권세도 집권자들의 형태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자는 그 자리에 오르는 방법도, 그 자리를 누리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문 43-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앙에 앉으실 예수님 자신마저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폭탄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은 기를 쓰고 올라가려 하는 곳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기를 쓰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는 역설이 통하는 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더 많이 섬기고 완전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낮아짐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실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낮아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을 이용하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그 길이 바로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SINCE 1975

No. 45 - 35

2019. 09. 0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88(통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 이 (Praise)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장 윤 주 집 사 (Prayer) [3부] 김 병 울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10장 46~52절 [신약p.72] 이 승 예 권 사 [2부] 고린도전서 11장 23~27절 [신약p.276]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 믿으라 [김기영]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사모하라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65(통484)장 다 같 이 (Praise)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배

오후 3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목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35편 28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54(통394)장 다 같 이 주를 앙모하는 자
기 도	장 윤 주 집 사
성 경 봉 독	시편 94편 1~11절 (구약 p870) 사 회 자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428(통488)장 다 같 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양영옥권사] 백 남 실 권 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4장 23~24절[신약p.41] 인 도 자
설 교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나요?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금요기도회]
이번 주(9/6) 금요기도회는 “사랑1초원” 주관으로 합니다.
- [전도부 하반기 전도]
전도부 하반기 노방전도가 9월 5일(목)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주일 헌금]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019년도 하반기 사랑의 주일 헌금을 다음 주일(8일)에 실시합니다. 준비된 봉투에 기도로 준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온가족예배]
9월 12~15일은 추석 연휴로 인하여 15일 주일은 온가족예배로 합니다. 1, 3부 예배만 있으며 주일학교 예배 및 중식은 없습니다. 15일 남전도회월례회 및 교육위원회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회]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회 정기회가 9월 16일(월) 오전11시 예수사랑교회(조근일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 [9월 행사 안내]
9월 5일(목) 전도부 하반기 노방전도시작
9월 8일(주일) 사랑의 주일
9월 15일(주일) 온가족예배
9월 21일(토) 소망부개학
9월 22일(주일) 루디아어전도회 헌신예배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 월례회(3부예배후/본당)

◎ 담임목사동정

9월 5일(목) 총회 G.M.S. 이사회 총회 10시 월문리 총회세계선교센터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춘화 권사	김경배 성도	한나여전도회	이창규 집사	한나여전도회	청년부
다음주	유은자 권사	이승애 권사	천세력 장로 염영분 권사/ 천성현 집사	최상걸 집사	민음2 부친 목동 일산	한나 여전도회

9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35주(1일)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이승애 권사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백남실 권사
	36주(8일)	유현호 집사	최기훈 장로	이영미 권사	윤조훈 장로	박종삼 집사	양영옥 권사
	37주(15일)	홍정훈 집사	배경철 장로	성미영 권사	온가족예배		정계숙 권사
	38주(22일)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곽정순 권사	배경철 장로	이승애 권사	최효자 권사
	39주(29일)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박복순 권사	강영성 장로	홍정훈 집사	이경자 권사
	예배안내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